



## 최첨단 라팔전투기, 한국 민간인이 조종

**프**랑스가 만든 첨단 차세대 전투기 라팔(Rafale)에 한국인 최초로 텔런트 홍일권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라팔은 돌풍을 뜻함). 시청자들은 깊고 푸른 지중해 상공과 만년설이 뒤덮인 알프스 산맥을 날아가는 라팔 첨단 다목적 전투기의 위용과 훈련과정, 프랑스 공군을 비롯한 군대의 병영생활을 이번 9월 중 KBS-2TV에서 방영될 '도전 지구탐험대'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KBS 제작진에 따르면 선진군대와 우리의 병영생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았다고 전하였다.

**미**국과 함께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해 가는 프랑스 닷소사의 라팔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다가 '96, '98년 서울 에어쇼에서 처음 모습을 보이면서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과 매니아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일약 세계적인 차세대 전투기로 부상한 첨단 전투기이다.

첨단 차세대 전투기인 만큼 보안도 철저했지만 무엇보다 조종사가 되는 훈련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것이라고 홍일권은 중도에 몇 번씩 포기할 생각을 했다고 한다.

훈련은 우리에게 술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프랑스 남서부 꼬냑의 전투 조정 교육단에서 1차 교육을 마친 후 까조 소개 프랑스 공군 제 120 전투비행단과 마르세유 인근의 이스트르 항공 교육단 등 프랑스 전역을 동서로 횡단하며 이루어졌다.

특히 미 공군 아카데미와 함께 쌍벽을 이루며 세계 4대 조종사 아카데미인 이스트르 항공 교육단에서의 교육을 마지막 과정으로 홍일권이 마침내 라팔에 탑승, 실제 상황에서 비행 하는 훈련은



제작진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았다고 한다.

결과는 대성공, 홍일권은 마침내 프랑스 현지 관계자들도 놀라게 한 뛰어난 용기와 적응력으로 라팔을 조종한 최초의 민간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프랑스어로 소브타주라 불리는 바다에 추락하거나 떨어진 조종사를 구출하는 해상 훈련이었다고 한다. 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 비용이 비행기 가격보다 몇 배 더 비싸다는 것은 상식, 그래서 조종사 해상 구조 훈련은 실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강도로 진행된다.

차갑기로 유명한 지중해 한 복판에 떨어진 홍일권은 계

# 무엇보다도 사상임대

획된대로 한번에 구출되지 못하고 자칫 영원히 지중해에 가라앉을 뻔했다. 그러나 한국인 특유의 오기로 이를 악문 홍일권은 구조대의 찬사를 받으며 마침내 해상 훈련을 성공리에 마쳤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해상 훈련이 끝나자 중력 훈련이 홍일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중력 훈련은 단순히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어서 모두들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홍일권은 무사히 훈련을 끝냈다.

드디어 모든 과정을 마친 홍일권이 라팔에 탑승(지상출력) 비행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 200대를 주문해 현재 60대만 생산중인 까닭에 프랑스 공군 조종사들 중에서도 라팔을 타본 조종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프랑스 조종사들의 부러워하는 표정을 뒤로 한 채 라팔에 오른 홍일권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창공 속으로 사라졌다. 관제탑, 제작팀, 하늘의 라팔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신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직접 라팔에 탑승해 비행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생생하기만 하다.

**프**랑스가 만든 라팔만이 최첨단 비행기는 아니다. 또 조종사 훈련 과정은 어느 기종이든지 모두 혹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라팔은 몇 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는 비행기이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되어야 할 특징은 놀라운 다목적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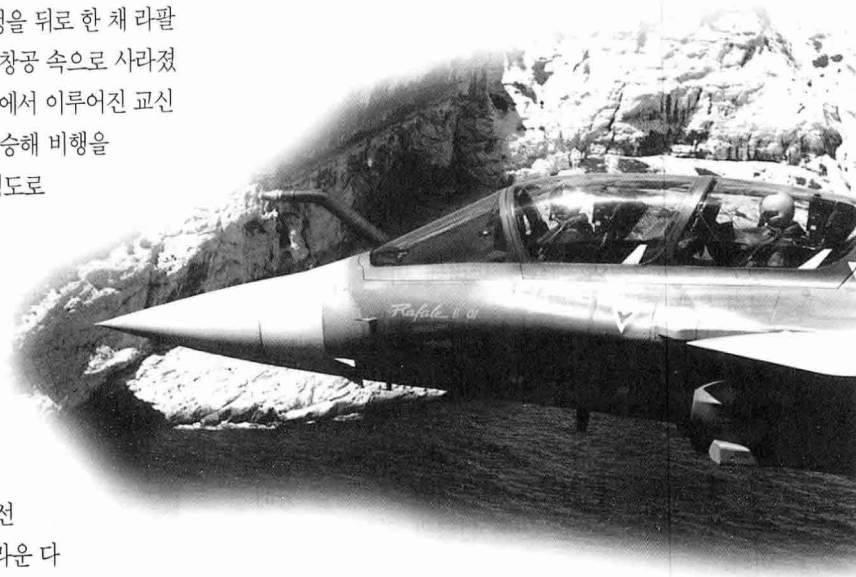
현재 프랑스 공군의 주력기인 미라주 2000 시리즈 24대로 이루어진 비행대대의 임무를 라팔은 단 8대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라팔은 기존의 재래식 무장에 서부터 앞으로 개발될 어떤 종류의 무장도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모든 작전 상황에 투입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이다.

크루즈 미사일과 공대공 단거리 미카 미사일로 무장한

라팔은 장거리 전략 폭격 임무와 요격 및 초계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임무를 지상에 재작륙해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라팔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목적 전투기로 제작되었다. 라팔은 공중 급유도 할 수 있다. 즉 공중 급유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계를 마치고 귀환하다 남은 기름을 동료 조종사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팔 기수 전면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중 급유용 프로브이다.

최소 중량에 최대 무장은 모든 전투기의 이상이다. 라팔은 바로 이 이상을 실현한 비행기이다. 에어쇼에 참가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꿈의 전투기”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고의 기동성을 선보여 오히려 곡예용으로 에어 쇼를 겨냥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수호이 35에 버금가는 기동성을 라팔은 갖고 있다. 이는 델타 익과 전방에 달린 두 개의 캐나다 익(오리 날개), 그리고 항공역학적 설계의 표준을 제시한 공기 흡입구와 동체 설계로 얻어진 결과이다.